뜨거운 불은 무쇠도 녹인다

목포에 위치한 빛과소금교회. 1989년 4월 조현용 목사가 제7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수료한 이후에 제자훈련을 접목하다가 6개월 만에 쫓겨나 1989년 11월 19일에 본의 아니게 개척한 교회다. 17년 개척 역사를 통해 장년성도 55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사실,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큰 교회이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전도를 통해 처음 복음을 듣고 회심해 등록하는 회심 성장률이 높으냐,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사역자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주는 기준이 된다.

조현용 목사

한 영혼을 붙들고 제자훈련에 미쳤던 조현용 목사는 실패를 극복하고, 빛과소금교회를 개척해 '제자훈련이라는 뜨거운 불은 무쇠도 녹인다'는 각오로 산삼같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빛과소금교회가 보인 각종 통계수치들을 살펴보자. 2005년 한 해 동안 등록한 181명의 새가족 중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새신자가 43.6%인 79명에 이를 정도로 회심 성장률이 높다. 또한 181명 중 114명이 월 3주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할 정도로 확실하게 정착했으며, 20.4%에 해당하는 37명은 좀더 잘 정착하도록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월 2주 정도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2005년에 새롭게 빛과소금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에 83.4%가 월 2주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하며 아름답게 정착할 정도로 놀라운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지도자가 될 사역훈련을 수료한 수료생이 남자 8명, 여자 10명, 도합 18명으로써 2005년에 등록한 181명을 10명씩 소그룹에 배치할 경우, 2005년에 등록한 181명의 새가족들을 모두 소그룹에 편성해 양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2006년에 사역훈련을 받게 될 제자훈련을 수료할 수료생들이 남자 9명, 여자 13명으로 2006년도에 사역훈련을 통해 배출될 예비 소그룹지도자들의 공급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

330개 교회가 그야말로 운집해 있는 26만 명의 지방 중소도시 목포에서 개척 이후 17년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혹자는 개척 17년 만에 550명 출석성도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방 중소도시라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모판목회'(필자 주 : 성도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대도시로 옮겨가 지방 중소도시 교회는 대도시교회의 모판역할을 한다는 자조 섞인 목회현실을 표현하는 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폄하할 수 없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빛과소금교회에서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수료한 수료생은 남자 73명, 여자 134명, 총 207명이다. 그러나 이중에 빛과소금교회를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성도들은 남자 22명, 여자 32명 총 54명이다. 훈련생들 중에 26%에 달하는 성도들이 훈련 이후 교회를 떠났다는 결론이다.

4명 중 1명이 훈련을 받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쯤 되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오늘날과 같은 건강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조현용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답을 제시한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만난 것도 은혜요, 제자훈련을 통해 제 운명이 바뀌고, 제 운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처자식과 성도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가끔, 제가 제자훈련을 알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부터 제자훈련 때문에 정말 예전보다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조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빛과소금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의 목회에서 배어 나오는 그만이 가진 무엇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그의 목회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개척 17년의 뒷이야기들을 풀어가 보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보내신 광야에 서다

조현용 목사는 31세에 부름 받은 늦깎이 목회자였다. 목포로 사역지를 옮기기까지 전통적인 2개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교회가 되겠는가? 이

주일예배가 끝나면 교회 내 소위
'대표이사' 집사 몇 명이 교회 옆 다방에 모여
"회계집사! 오늘 돈 얼마 나왔어?"라며
대화하던 교회였다.
그런 교회에 부임한 조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고,
7기 CAL세미나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런 목회가 바람직한가?"라는 잦아들지 않는 고민에 시달리게 되었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 기도하면서 광주 금호지구에 개척부지 250평을 구입하고 개척 선발대를 편성해 광주로 이주시켰으며, 둘째 아이를 미리 광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러나 어느 날 조 목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 종인데 교회 개척이 주님의 진정한 뜻일까?" 그래서 조 목사는 기도제목을 바꾸었다. "주님! 바람직한 교회 세우려고 땅도 마련하고 선발대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1989년 1월 말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조 목사를 청빙하러 왔다.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제목을 봤더니 8가지가 맞아 떨어지고 2가지는 아직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목포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광주에 선발대로 올라간 여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부지 구입 비용도 돌려 주고, 아이는 목포로 전학시켰다.

잦아들지 않는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 목사가 부임한 교회는 사연이 많은 교회였다. 목포지역에서 부흥하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소천한 이후 분열이 생겨 당회장 목사를 따르는 100여 명의 교인들이 나와 새로이 세운 교회였다. 그러나 분립된 지 6개월 만에 2차 분립이 있었고, 또다시 목회자를 쫓아냈던 30여 명의 가족중심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주일예배가 끝나면 교회 내 소위 '대표이사' 집사 몇 명이 교회 옆 다방에 모여 "회계집사! 오늘 돈 얼마 나왔어?"라며 대화하던 교회였다. 그는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옮겨온 교회지만 "이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미친 자를 만나 미치고, 일감을 만나 미치다

부임 이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기도하던 조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전남 녹동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던 친구 강원준 목사의 권면을 통해 제7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미나에 참여한 조 목사는 첫 시간 '광인론'에 바로 미치게 된다. 그도 늘 주님께 미치고 싶었는데 억지로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미칠 만한 사람과 일을 만나야 미치는데 드디어 그의 인생에 '미친 자'를 만났고, '미칠 만한 일감'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은혜를 받으니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치게 된 것이다.

조 목사는 그 때의 강력한 감동을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첫 시간 이후에는 강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미친다. 목포로 돌아가자마자 제자훈련을 시작한다. 내가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모르고 갈망하던 것이 이것이구나. 이제 만났구나.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자훈련 토양 준비, 소그룹의 특성, 귀납적 성경연구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다. "준비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다."

뜨거운 불 앞에는 무쇠도 녹는다

조 목사는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마치고 목포로 내려오는 5시간 30분 동안 고속버스 안에서 새가족모임 교재와 테이프를 들으며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낮 예배에 곧바로 '새가족모임' 강의를 녹취해 부임 후, 60명으로 부흥한 교회에 접목했다. 5주 동안 주일 낮 예배를 2시간 정도로 드리면서 새가족모임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제자훈련생을 모집해 제자훈련을 접목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지몽매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우선 선발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모병하듯이 모든 성도들을 6반으로 나눠 편성을 했습니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원리원칙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생 중 한 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산하기 한 주 전까지 훈련에 참여하고, 출산 후 9일쯤 되어서 그 집으로 찾아가 3시간 정도 중간에 애기 젖 주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때 조 목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변하면 기적이다. 나는 정면 돌파다. 이 좋은 내용으로 공부하면서 안 바뀌면 구제불능이다." 그때 조 목사가 무지몽매한 중에도 한 가지 받은 은혜는 "뜨거운 불 앞에는 무쇠도 녹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주간에 성경을 3, 400장씩,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구토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훈련생들은 한 주간 내내 제자훈련 때문에 시장 가고 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훈련에 임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고, 어떤 집사는 건축하자고 집을 팔아 헌금하기도 하는 등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다. 교회는 활력이 넘쳤고 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목회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5월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7월쯤 되었을 때는 장년이 80명 정도 출석했는데 새벽도, 주일밤도, 수요일밤도 80명이 모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좋은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변화도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추풍낙엽처럼 훈련생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떨어지면 제자훈련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부흥되었다. 그러니까 조 목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건강의 적신호가 들어오다

약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섯 반의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혼자 예배 인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성대에 무리가 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에 갔더니 목을 너무 혹사해서 공명판에 물집이 생겨 굳어 버렸다는 것이다. 성대제거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받고 한 달간 아무 것도 못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만 하자, 또다시 제자훈련을 재개했다. 그러자 한 달쯤 후에 재발했다. 의사는 이렇게 계속되면 매년 수술을 해야 한다며 "목사님은 목이 생명입니다"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 순간, 조 목사는 "목사의 생명이 성대인가 주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목포로 내려와 기도했다. 물론 지금까지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여전히 목소리가 거칠고 아침에는 많이 잠겨 있지만 그래도 은혜로 목회를 잘하고 있다.

야! 목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몇 달간 강력하게 제자훈련을 진행하자 교회 안에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 두 번의 분열 끝에도 살아남아서 기득권을 쥐고 흔들었던 몇몇 중심인물들이 큰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게 되자 조 목사의 제자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10월 중순쯤에는 조 목사의 집에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현관에 못을 박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조 목사가 어느 날 새벽기도회를 가는데 교인들이 돌아오면서 "목사님 못 들어갑니다. 그 몇몇 교인들이 교회 현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교회로 가보았더니 소위 '대표이사' 집사 몇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현관을 지키고 있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훈련인가 뭔가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니 안 되겠습니

기초 양육훈련과 선발과정 없이 시작한 제자훈련이 실패로 끝나고,
교회에서 쫓겨 나기까지 한 조현용 목사는 89년 빛과소금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훈련과 모델교회 탐방을 통해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모델과 건강한 교회에 대해 도전을 주었다.

다." 그래서 조 목사는 미련 없이 찬송가 539장(이 몸의 소망 무엔가)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조 목사가 "내가 너희 보고 사느냐? 주님 보고 살지…"라는 마음으로 담담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있기 2주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였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가 당했던 그 일이 시시하게 보였고, 누구에게든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디에 가더라도 목회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기한 일은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뒤로 하고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서 있던 이 교회 여 집사의 믿지 않던 남편이 보게 되었고, "야, 저 목사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며, 조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광로는 순도 99.9%의 정금만을 남긴다

목요일 새벽에 이런 일이 있은 후 제자훈련을 받던 집사들이 조 목사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빛과소금교회가 개척되었다. 1989년 11월 19일의 이야기이다. 조 목사는 그때의 감격을 다시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모인 숫자가 28명 정도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사람' 들만 소복이 모아 보내 주셨더라구요. 감사한 것은 제 목회가 그 이후에 힘들어졌으면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뒤로 저희 교회가 잘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그 와중에도 남, 여 각 1반씩 남은 제자반은 주공아파트 13평 좁은 방에 모여 계속 훈련을 했다. 다른 목회자들이 위로 차 방문했다가 성령충만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조 목사를 보고는 "우리가 위로하려고 왔는데 위로할 필요가 없겠군"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 집사의 단층집 옥상에 21평 조립식 구조물을 세우게 되었다.

조 목사에게 교회를 두고 나와야 하는 일은 큰 고통이었지만 은혜가 너무 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다. 조 목사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 "제가 목포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를 늘 보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나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폭풍우 이후의 맑고 깨끗한 바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도 소문나면 모여든다

남의 집 옥상 21평 조립식에서 약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자 108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조금 더 넓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되었다. 새로 마련한 교회는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야말로 '깊은 산 속 옹달샘' 이었다. 그 예배당을 처음으로 30분 만에 찾아오면 지리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빛과소금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울산 극동방송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떠났던 정삼덕 본부장의 경우에는 3주간 동안 눈앞에 예배당을 두고도 통로를 찾지 못해 돌아갈 정도였다고 한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지만 5년 정도 제자훈련에 헌신하고 좋은 소문이 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조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깊은 산속 옹달샘에도 물이 모이니까 고이더라"는 것이다.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로 카피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목회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를 5년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더 늦기 전에 목회의 모델을 좀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익히고자 늘 사역의 성지처럼 생각해 왔던 사랑의교회로 3개월간 탐방을 계획했다.

"제자훈련 목회를 3, 4년 하다보니깐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더라구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다간 독선의 위험에 빠지겠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정도에서 어긋난 것은 아닐까?' 라는 궁금증이 깊어지더라구요. 그래서 5년째 되었을 때 교회 업무를 다 제쳐두고, 사랑의교회에 탐방 목사로 올라갔습니다."

3개월 예정을 하고 올라갔던 탐방은 만 5주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들과 똑같이 탐방 목사라는 명목으로 모든 소그룹, 남 · 여 제자훈련 모임,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마음껏 탐방을 하고 볼 수 있었다. 특별히 탐방기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통해 지난 5년간의 훈련사역을 되짚어보고, 오리지널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조 목사의 오리지널에 대한 집착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1년 남자 사역반에는 사역훈련 3수생 시무장로가 3년 만에 사역훈련을 수료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2001년 남자 사역반의 경우에는 9명 수료생 중에 3명이 3수생들이었다. 그 정도로 훈련의 수준을 유지하며, 오리지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초지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모델(오리지널)에 대한 집착에 대해 이렇게 피력한다. "가치를 느꼈지만 헌신하기까지는 모델이 필요하더라구요. 따라갈 모델이 있을 때 훨씬 더 목회가 쉬웠습니다. 성도들도 헌신된 오리지널 신앙의 모델을 자기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때 더 빨리 변화되더라구요."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탐방 목회를 통해 보는 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린 조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좋은 모델 교회를 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일년에 몇 차례 당회원이나 기관장, 주일 학교 교사나 순장들을 토요일 날 모델교회로 보낸다. 한번 모델 교회의 현장을 보고 온 성도들에게는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동을 받은 그들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이 물 흐르듯 결정되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회에서 선교비를 올리는 문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안디옥교회를 탐방하게 했다. 탐방을 다녀온 평신도 지도자들의 충격과 감동이 선교비 증가를 결정하는 주춧돌이 되었다. 조 목사는 탐방 목회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교사들이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보내서 직접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도전받고 깨닫고 변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다

개척 초기부터 조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목사 가운 하나만 들고 나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에도 개척교회 지원 선교비를 줄이지 않을 정도로 원칙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그랬기에 개척 후 5년이 되도록 교회 차량조차 구입하지 못하면서도 개척교회 선교비는 꼬박꼬박 보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예배드리러 올 때 택시 타고 다녀라.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올곧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헌신시키자 성도들 스스로 차량을 구입해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못 지어도 선교는 포기하지 않는다. 교회 차량은 구입하지 못해도 선교는 한다.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원칙을 고수했을 때, 성도들이 스스로 성전 부지를 구입하도록 헌금을 하기 시작해 3년 동안 2억 원의 헌금이 모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 현재 교회가 위치한 땅을 사라고 하셨다.

현재 빛과소금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시청까지 걸어서 5분, 10분 이내에 방송국이 2개, 법원, 경찰청 등의 관공서가 위치해 있는 요지이다. 원래는 철도청 소유로, 한 사람이 이 땅을 몽땅 산 후에 일부를 팔아야 했는데 빛과소금교회에 찾아와 땅을 사달라고 통사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3,800평의 땅을 평당 7만 원에 분양가대로 매입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건축은 건축비만 20억 정도가 들었는데 돈 걱정해 보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일단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 도장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30여 명의 성도들이 자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훈련 목회를 만나고, '한 사람 비전'에 사로잡혀
17년을 한 우물을 파 용솟음치는 하늘 행복을 누리는 목회를 즐겁게 해가고 있다.
그러나 56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 17년의 목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10여 년의 목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전 건축 끝날 때까지 시간의 60%를 바친다고 매일 건축현장에 나와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었으며, 여전도회원들은 교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의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다. 교회를 건축할 당시인 2000년은 목포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6년 되는 해였는데, 지금 규모의 빛과소금교회 예배당과 같은 예배당을 조용하게 단기간에 문제없이 건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 원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다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흉내만 내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못 옮기지만 너는 빛과소금교회로 나가라

제자훈련 목회철학으로 17년을 올곧게 달려온 빛과소금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새기기 시작했다. 교회 내에 복지부 장관이 허락한 복지법인이 설립되었고, 목포지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도 주관해 섬기고 있다.

특이할 만한 일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을 빛과소금교회로 보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이 교회로 나가지만 너는 좋은 교회로 가야 한다." 심지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가 교회에 다니려고 하자 빛과소금교회에 나가라고 추천할 정도라고 한다.

한번은 보험회사 소장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빛과소금교회로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데리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에 빛과소금교회 집사들만 다릅디다. 그래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처갓집 식구들이 나가는 교회, 제 모교회가 있어도 빛과소금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는 인삼 한 가마니보다 더 귀하다

조 목사는 지금도 영적인 일꾼을 찾아다니는 심마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있다.

"심마니는 인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삼을 찾아다닙니다. 산삼과 인삼은 모양도 다르지만 가치나 효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산삼 한 뿌리가 인삼 한 가마니보다 더 귀한 법입니다. 새로 교인이 등록하면 등록카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구두장사가 구두 먼저 보고 이발사가 헤어스타일 먼저 보듯이, 사람을 보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또한 그는 "심마니는 산삼을 찾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밤에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삼을 보고 '심봤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도 그만큼 준비와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마니는 어린 산삼을 발견하면 표시해두고 계속 지켜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처음에는 자진해서 제자훈련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점찍어두고 잘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준비시켜서 잘 훈련되기만 하면 훈련된 제자는 성도들 10명보다 더 탁월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삼이 아무리 많아도 산삼이 있어야 합니다. 심마니처럼 준비하고 꿈꾸면서 사람들을 보고 산삼을 발견하고 키우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은혜에 목마르다

조 목사는 31세가 되기까지 거의 믿음 없는 세상 직장인들처럼 생활을 했고,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 가정의 딸과 결혼한 결혼생활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도망을 갈 정도로 순탄치 못했었다. 그러나 아내의 눈물어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새롭게 살아야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신학교까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다.

"제가 늘 술에 취해서 비 오는 날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후회하면서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각오하고 결심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이 아니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제자훈련 목회에 17년을 헌신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빛과소금교회에 조 목사의 고향 친구들, 심지어 술 먹고 화투치던 직장 동료들, 일가 친척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너무나 잘 아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을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말로 잡겠습니까? 지식으로 잡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는 못합니다."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리라

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훈련 목회를 만나고, '한 사람 비전'에 사로잡혀 17년을 한 우물을 파 용솟음치는 하늘 행복을 누리는 목회를 즐겁게 해가고 있다. 그러나 56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 17년의 목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10여 년의 목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은혜를 받으니까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겼습니다. 일생을 가치 있게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겠다는 헌신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변해야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도 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훈련받는다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닮으려 노력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빛과소금교회도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압니다. 만약에 제가 무너지면 참 비참할 것 같고, 저희 가정도 참 비참할 것 같습니다. 저를 신뢰하며 훈련받고 헌신했던 분들이 너무나 아파할 것 같아서 제가 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을 때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아직 조현용 목사가 목회를 정리하기까지는 14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가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고, 모판목회의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산삼같은 일꾼을 찾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심마니의 심정으로 뚝심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목회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 있는 그의 목회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는 목회가 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아름다운 평신도 동역자들과 6,000여 평의 부지와 멋진 예배당 등을 통해 지금까지보다 더 아름답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

목포 빛과소금교회 취재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우물을 얕은 꾀 부리지 않고 오리지널로 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조현용 목사가 한 우물을 파도록 힘을 주었던 옥한흠 목사의 일성이 귓전을 맴돈다. "한 영혼에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엎드리고 5년 동안만 근신하면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박주성 목사〉